

## 여름 워터파크 전쟁 개성과 강자



원마운트는 경기도 고양에 위치해 접근이 편리하고 도심 속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내 파도풀(왼쪽)과 야외 콜로라이드는 더위를 날려버릴 짜릿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사진제공 | 원마운트



## ‘도심 속 물놀이’ 원마운트, 노는 높이가 다르다

## ‘섬머 쿨 파티’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편리한 접근성·콘셉트 차별화로 승부  
‘8월의 크리스마스’ 테마 색다른 재미  
지상 50m 슬라이드 짜릿한 쾌감 선사

여름 워터파크는 폭염보다 더 뜨거운 경쟁이 벌어지는 흥성 없는 전쟁터이다. 찾아가는 사람들이 시원스런 물놀이를 즐기면 그만이지만,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워터파크마다 치열한 아이디어 경쟁이 벌어진다. 특히 워터파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대형 물놀이 어트랙션들이 이제 대부분 상향 평준화를 이루면서 물놀이의 참신한 테마로 승부하려는 경향은 더 강해졌다. 서울서 30분 거리, 경기도 고양의 원마운트는 ‘도심 속 물놀이’라는 차별화된 콘셉트를 내세워 올 여름 ‘워터파크 대전’에 나서고 있다.

●섬머 쿨 파티 ‘8월의 크리스마스’  
원마운트는 연면적 4만㎡로 도심 워터파크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하지만 도심에 있다보니 아무래도 교외 워터파크들과 비교하면 크기 면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약점을 원마운트는 접근의 편리함과 ‘도심 물놀이’라는 차별성으로 바꾸어 어필하고 있다. 원마운트는 강남, 강북을 가리지 않고 서울 어디서든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승용차로 가기가 편하다. 워터파크 나들이가 큰마음 먹고 움직여야 하는 행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구, 연인끼리 언제든 마음 내킬 때 갈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다.

특히 다양한 테마의 여름 파티는 다른 워터파크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재미다. 원마운트는 ‘8월의 크리스마스’를 올 여름 테마로 정했다. 산타 클로스와 함께 하기, 한 여름에 듣는 캐럴 리믹스 클럽음악, 위기에 빠진 토틸프를 구하는 ‘수중 징검다리 건너기’, 비밀번호를 잊은 산타클로스의 선물상자를 여는 ‘시크릿박스’ 등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름 시즌 내내 실시한다. 산타 모자를 쓴 매력적인 안전요원은 여름 이벤트의 보너스 볼거리다.

파티 팬을 위한 특별 축제도 있다.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밤에 성인을 대상으로 ‘SEXY Christmas Pool&Fom Party’를 진행한다. 야외 파티풀에서 여는 풀사이드 거품파티다. 여름 밤에 조명을 받은 하얀 거품과 함께 최신 디제잉, 파티 음료를 즐길 수 있다.

●지상 50m, ‘노는 높이’ 남다른 어트랙션  
재미있는 파티가 인기 있지만, 어트랙션도 독특한 즐거움이 있다. 원마운트는 4층에 실내시설, 7층에 야외시설이 있다. 옆으로 넓게 자리잡은 다른 워터파크와 달리 수직으로 시설이 위치해 지상 50m 높이에 슬라이드가 있는 ‘노는 높이’가 다른 곳이다.  
가장 높은 워킹대비쉬와 스카이버메랑고에서는 주변의 한강과 일산 호수공원이 한눈에 들어온다. 7층 야외 워터파크에서 출발해 원마운트 쇼핑몰 거리의 상공을 돌아 4층 실내 워터파크로 미끄러지는 반투명 슬라이드 투겔라이드도 원마운트의 명물이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고객을 위해서는 시간

당 360명까지 수용 가능한 대형 아쿠아 놀이터 자이언트 플레이와 판타스틱 플렉스가 있다. 어린이 전용 공간은 안전사고에 대비해 낮은 수심으로 이뤄져 있다.

워터파크 옆 워터테라피에서는 35℃의 수압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독일 수치료 시스템 바데풀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물놀이 후 차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는 찜질실과 수면실을 비롯해 2500원 도사로 가득 찬 북카페, 키즈집, 어린이 전용 놀이방 등이 있는 OMT센터(키즈센터)가 있다.

방문 전 홈페이지나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 온라인 티켓 판매 사이트를 미리 체크하면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보다 알뜰한 휴가를 즐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워터파크에 이어 반전의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면 이웃한 원마운트 스노우파크를 찾아가자. 북유럽 산타마를 테마로 더위를 잊게 하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눈과 얼음, 동물썰매의 이색 풍경이 기다리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 영화·콘서트 보러갈까

●‘그 후’(6일 개봉 | 감독 홍상수 | 출연 권해효·김민희·김새벽 | 91분 | 청소년관람불가)



아름의 첫 출근 날. 출판사 사장인 봉완의 연인 자리

에 앉아 일하게 된 아름은 책상에서 사랑의 마음을 적은 노트를 발견한다. 마침 출판사로 찾아온 봉완의 아내 아름을 남편의 여자로 오해한다.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이 네 번째 합작한 작품. 하루 동안 아름과 봉완, 그 주변인들이 겪는 일을 담았다. 5월 열린 제70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 홍상수 감독은 ‘오! 수정’, ‘북촌방향’에 이어 다시 흑백영화를 선보인다.

●국카스텐 ‘스콜’(8일 오후 7시·9일 오후 6시 |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 120분 | 만 7세)



록밴드 국카스텐의 여름 시즌 브랜드 공연. 2015년부터 매년 여름 ‘스콜’의 이름 아래 강렬한 록 넘버와 화려한 퍼포먼스로 관객의 지지를 받아왔다. 특히 대형 공연장 중심의 연발공연과 달리

3000석 규모 스탠딩 공연으로 진행돼 국카스텐의 매력을 객석 전체에서 경험할 수 있다. 전곡호의 기타 사운드, 김기범의 베이스라인, 이정길의 드럼 그리고 더욱 단단해진 하현우의 가창력이 뜨거운 여름밤에 시원한 폭의 비를 뿌린다. 1544-1555.

●하이네켄 프레젠테이션 스타디움(8일 오후 2시 |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 580분 | 만 19세)

2014년부터 매년 여름 열리는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 페스티벌. 세계적인 DJ들의 디제잉 속에서 거대한 빛의 인형, 공중을 나는 곡예사, 밤하늘을 수놓는 LED 라이팅쇼, 하이라이트 순간을 장식하는 불꽃놀이와 설 새 없이 펼쳐지는 댄스 등 화려한 퍼포먼스가 관객의 눈과 귀를 매료시킨다. 특정 아티스트의 공연이 끝난 뒤 공연장 둘레에서 레이저가 뿜어져 나와 거대한 초록별이 그려지는 장관도 연출된다. 070-5055-5791.

## 책 읽는 주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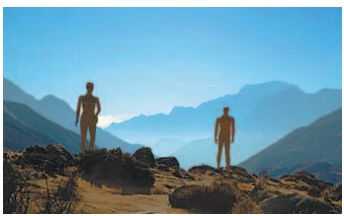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이야기 3·4(양정우 저 | 사회평론)



지난해 출간된 1·2권은 미술을 다룬 교양서로는 유례없이 큰 이슈가 됐다. 동아일보보는 이 책을 ‘올해의 책’으로 선정했다. 이번 3·4권의 주인공은 ‘초기 기독교 중세의 문명과 미술’이다. 저자는 “아직도 중세인의 DNA가 서양사람들에게 깊이 남아있다”라고 말한다. 물론 이 DNA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은 기독교다. 이번 3·4권은 중세미술을 다룬 대중교양서로는 국내 첫 책이다. 마치 저자로부터 일대일 강의를 듣는 듯 술술 읽힌다. 질 좋은 도판을 대량 수록해 소장가치를 높였다. 양형모 기자

## 주말엔 전시회

●이상신 개인전 : 라스트 파라다이스(7월12~18일 |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 3층)



설치작업을 이용해 사진으로 이야기 하는 이상신 작가의 개인

전 ‘라스트 파라다이스-아담과 이브’가 열린다. 원시 자연 그대로인 장소에 ‘아담과 이브’로 명명된 마네킨 오브제를 설치해 우리들에게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작업이다. 지구의 ‘어머니 산’인 히말라야에서 시작해 필리핀, 일본, 한국 등에서 5년 동안 작업한 결과물을 만날 수 있다. 양형모 기자



지난해 열린 평창대관령음악제. 소프라노 임선혜(가운데 여성)가 헬싱키 바로크양상블과 함께 바흐의 칸타타를 노래하고 있다.

사진제공 | 평창대관령음악제

## 대관령에 울려 퍼지는 ‘불가강의 노래’

양형모의 아이러브 스테이지  
평창대관령음악제 26일 개막

차이코프스키 등 러시아 거장들 명곡 연주  
평창올림픽 성공 기원 특별콘서트도 열려

여름이면 클래식 음악팬들의 마음이 울렁대기 시작한다. 인간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이라는, 해발 700미터에서 펼쳐지는 음악의 제전. 평창대관령음악제(예술감독 정명화·정경화)가 열네 번째 막을 올린다.

평창대관령음악제는 매년 새로운 주제를 내놓고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들을 대관령으로 불러 고품격 연주회를 펼쳐왔다. 올해의 주제는 ‘그레이트 러시아인 마스터스-불가강의 노래’다. 북유럽,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오스트리아를

거쳐 마침내 러시아에서 지역순회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평창대관령음악제는 지난해 8월 새롭게 시작한 마린스키 극동페스티벌(예술감독 발레리 게르기예프)과 MOU를 맺었다. 이번 주제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차이코프스키, 라흐마니노프, 프로코피예프, 쇼스타코비치, 러시아 거장들이 클래식 음악사에 아로새긴 명곡들이 연주된다. 러시아 작곡가들의 걸작을 오롯이 구현하기 위해 러시아의 명연주자들이 대거 초청됐다.

7월26일 개막공연과 28일 공연은 평창동계올림픽 D-200일을 맞아 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특별콘서트로 열린다. ‘한중일 콘서트’라는 부제답게 3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오를 채비를 하고 있다.

올해 음악제에서는 3개의 위촉곡도 선보인다. 한국의 젊은 작곡가 김택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념하는 ‘평창을 위한 팡파르’를 음악제

에 헌정했다. 미국 작곡가 윌리엄 볼콧의 ‘6중주’, 프랑스의 지휘자 겸 작곡가 장 폴 프랭의 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카페 푸시킨’도 있다.

올해 처음으로 음악제에 참가하는 연주자들도 반갑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스티븐 코바체비치, 첼리스트 로렌스 레쎈, 비올리스트 가레스 루브, 바이올리니스트 마유 카시마 등의 이름이 보인다. 평창대관령음악제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정명화, 정경화도 첼리스트와 바이올리니스트로서 각자의 무대를 준비 중이다.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이 참여하는, 음악제의 하이라이트 ‘저명연주가 시리즈’는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총 13회 공연된다. 매년 일찌감치 티켓이 매진되는 인기 시리즈다. ‘마스터클래스’, ‘아티스트와의 대화’, ‘떠오르는 연주자 시리즈’, ‘학생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올해도 피아니스트 손윤임이 부예술감독을 맡았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 엄마 아빠 어디가

●부여서동연꽃축제(7.7~16 | 충남 부여군 서동공원(궁남지) 일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3년 연속 ‘우수축제’로 선정된 축제다. 부

여 궁남지는 백제 무왕 35년(634년)에 만들어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인공연못이다. 매년 7월 축제 기간에 이곳에서는 백련, 홍련, 수련, 가시연 등 50여종의 다양한 연꽃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 올해는 개막공연을 비롯해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멀티미디어쇼, 서동선화 나이트 페어이드, 궁남지 연꽃 우드아트 만들기, 연꽃 쿠키만들기, 서동선화 의상 입어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부산크레이지오렌지 아트페어(7.6~24 | 부산광역시 영하의 전당)



한 여름에는 겨 보는 즐거운 예술 체험. 평소 어렵게 느껴지던

현대미술 작품을 가까이서 접하고 작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감상하는 문화 행사이다. 마음에 드는 작품은 공정하고 부담없는 가격으로 현장서 구입할 수 있다. ‘바다에美치다’전에서 참여작가 160명의 회화, 조각, 사진, 설치미술, 미디어아트 등 3000점을 전시한다. 특별전으로는 박수근 목판화 전시와 그의 차남 박성남 화가 및 초대작가 김형곤 전 등이 열린다. 야외에서는 미국 샌버나디노스 깃발전을 만날 수 있다.

편집 | 고정필 기자 ico@donga.com